

‘7월 대반격’ 서막...‘필승카드’ 이의리가 돌아왔다

KIA 이의리, 390일 만에 마운드 등판...2군서 20닝 비자책

수술 이후 첫 실전부터 ‘151km’ 쾌투...위기 관리 능력까지 과시
투구 내용 합격점, ‘오늘보다 나은 내일’ 희망...‘완벽 복귀’ 시동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좌완 영건’ 이의리가 성공적인 부상 복귀전을 치르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의리는 22일 KIA 타이거즈 합평전용구장에서 열린 ‘2025 KBO 퓨처스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20닝 동안 2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비자책)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1km를 찍었고, 커브, 슬라이더, 체인업 등 다양한 구종을 섞으며 총 9명의 타자를 상대했다. 총 39개의 공 중 26개(67%)를 스트라이크로 기록하며 안정적인 제구력을 뽐냈다.

특히 돋보인 것은 위기관리 능력이었다.

1회초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곧바로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에이스다운 면모를 뽐냈다.

2회에도 마운드를 지킨 그는 무사 1루에서 우익수 방면 2루타와 수비 실책이 겹치며 한 점을 내줬지만, 이후

침착하게 후속 타자들을 차례로 처리하며 임무를 마쳤다. 실점은 비자책으로 기록됐고 전반적인 투구 내용은 합격점이었다.

이번 등판은 지난해 5월29일 NC전 이후 약 1년 1개월(390일) 만의 공식 경기다. 이의리는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인대 부분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른 뒤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이후 재활과 적응 훈련을 차근차근 이어온 그는 올 시즌 전반기 복귀가 유력했지만, 지난달 검진에서 염증이 발견되며 복귀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그러나 이날 등판을 통해 그는 다시 1군 마운드를 향한 순항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등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이의리는 “컨디션이 매우 좋고, 전력 투구 후에도 특별한 피로감이 없다”며 “구속도 훈련 때보다 잘 나왔다. 실전이라 긴장되긴 했지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무리하지 않으려 했다. 조금함을 내려놓고 기본기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며 “지금은 다시 잘 준비해서 팀이 필



KIA 타이거즈 이의리가 22일 KIA 타이거즈 합평전용구장에서 열린 ‘2025 퓨처스리그’ 두산과의 경기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주홍철 기자

요할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진갑용 퓨처스 감독 역시 그의 첫 실전투구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수술 이후 첫 실전 경기였는데, 마운드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결과보다 본인이 던지고 나서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몸 상태가 100%는 아니지만, 다음 등판에서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직구와 변화구 모두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의리는 2021년 KIA에 입단한 뒤 통산 80경기에 출전, 26승 22패 평균자책점 3.89를 기록 중이다. 2022-2023 시즌에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올리며, 팀의 차세대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그가 선발전에 가세하게 되면 KIA는 더욱 탄탄하고 유연한 마운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단 측은 이의리의 몸 상태와 재활 경과를 면밀히 체크하며 향후 1군 복귀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합평구장에는 이의리의 복귀전을 보기 위해 KIA 측 추산, 약 500명의 팬들이 운집해 장사진을 이뤘다.

광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방문한 한 소녀 팬은 “이의리가 오랜만에 던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왔다”며 “앞으로 다치지 말고 오래 던졌으면 좋겠다”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주홍철 기자

미리 만나는 감동과 투혼...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테스트 이벤트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가 24-29일 6일간 광주국제양궁장(예선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결승전)에서 열린다. 사진은 22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제36회 전국 남녀초등학교 양궁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양궁대회 내일 개막

예선전은 광주국제양궁장, 결승전은 5·18민주광장특설무대에서 열려
오는 30일 대회 우승팀·광주세계선수권 국가대표 특별 이벤트 경기

‘양궁 메카’ 광주에서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열기를 미리 만나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양궁협회가 주관하는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프레대회로 열려 그 의미를 더한다.

이번 대회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 600여명이 참가해 1천440라운드 및 올림픽라운드 방식으로 리커브와 컴파운드로 나뉘 시·도 대항, 개인전, 단체전, 거리별 승자를 가린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 주역들이 출전하는 전

통 있는 대회로, 전국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대통령기 양궁대회는 2017년부터 광주에서 7년 연속 열리다 지난해 광주국제양궁장 확장 공사로 잠시 멈췄다 올해 다시 광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특히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테스트 이벤트 경기로 치러진다. 예선전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29일 전 종별 결승전은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결승전은 생중계 방송으로도 일부 진행되며, 다음날인 30일에는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번 대회 일반부 우승팀 간의 특별 이벤트 경기도 치러져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불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규모의 경기시설, 숙박, 교통, 음식 등에서 ‘최고’라는 참가선수들의 호평 속에 해마다 역대 최고의 성공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다양한 기록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광주시양궁협회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22-23일에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는 제36회 전국 남녀초등학교 양궁대회가 열린다.

한국 양궁 미래의 양궁 꿈나무들의 축제인 초등대회에는 저변확대와 세계화 추세에 맞춰 취 컴파운드 부문이 신설돼 열린다.

이번 대회에 광주는 유촌초, 성전초, 염주초, 두암초, 문산초, 삼정초 등 6개 팀이 출전해 광주 양궁의 밝은 미래를 점점한다. /박희중 기자

광주-센다이 초등 축구 교류전 7월 개최

광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공모 선정 국비 2천만원 확보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국제 유소년 스포츠교류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2일 “대한체육회 ‘2025년도 한·일 지역·종목 간 청소년스포츠교류 공모’에 광주시축구협회가 선정되며 국비 2천만 원을 확보, 7월 중 보라매축구공원 등 광주 일원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가 협약된 종목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다. 지난해 광주시축구협회가 선정돼 초등등학교 선수단이 일본 센다이로 파견 교류를 다녀온 바 있다.

광주시축구협회는 광주시와 센다이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양 도시를 오가며 활발히 교류를 진행해 왔다. 광주시체육회는 이 사업으로 광주 지역 유소년 선수들의 국제스포츠 경험 축적과 함께 경기력 향상을 통한 체육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축구 유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양 도시의 축구 경기력 향상은 물론 문화 및 정서상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선수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전남도청 선수단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근대5종, 문체부장관기 ‘金2’

장성 사창초 황채원 개인전 ‘金’·전남체육중 근대2종 단체전 ‘金’

전남도청 근대5종 선수단이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전남도청은 지난 18일 해남 우슬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4종(펜싱·수영·레이저런(사격+육상)) 단체전에서 양우승, 박상구, 이동기, 조예준이 팀을 이뤘 3천441점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영하, 서창완, 양우승이 호흡을 맞춘 4종 릴레이경기에서도 총점 1천121점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선봉에 선 양우승은 2관왕에 올랐다.

여자 초등 3·4학년부 근대2종 경기에 출전한 황채원(장성 사창초)은 총점 533점으로 개인

전 1위를 차지했다.

남자중등부 근대2종 단체전에서는 김민재, 서광진, 김단오, 양진석이 팀을 이뤄 총점 2천371점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김민재(전남체육중 2년)는 남중부 근대2종 개인전에서, 광동규, 김강영, 허민준(이상 전남체고)도 남고부 계주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하며 전남의 메달레이스에 힘을 실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어린 선수들이 큰 무대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이들이 앞으로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근대5종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131번째 도전’...옥태훈, KPGA 선수권 우승

옥태훈이 제68회 한국프로골프(KPGA) 선수권대회(총상금 16억원) 정상에 올랐다.

옥태훈은 22일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몰아쳐 9언더파 62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4타의 성적을 낸 옥태훈은 K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다.

2018년 KPGA 투어에 데뷔한 옥태훈은 데뷔 후 125개 대회 만에, 데뷔 이전 출전 대회까지 더하면 131번째 대회에서 처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이달 들어 백승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 4위,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공동 5위에 이어 최근 3개 대회 연속 ‘톱5’를 달성한 옥태훈은 이번 시즌 KPGA 투어 상금과 제네시스 포인트 모두 1위가 됐다.

우승 상금 3억2천만 원을 받은 옥태훈은 시즌 상금 6억1천945만 원을 쌓았고, 제네시스 포인트 1천300점을 추가해 3천940점으로 2개 부문 모두 선두에 나섰다. /연필뉴스



옥태훈이 22일 열린 제68회 한국프로골프 선수권대회 4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KPGA 제공>